

미국 신좌파의 역사적 의미 : 그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언*

이 주 영

〈전국대학교 사학과〉

1960년대 미국의 신좌파(the New Left) 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서들이 드러낸 문제점의 하나는, 그것들이 신좌파라는 말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 말은 미국의 부르주아적이고 청교도적인 가치를 공격하는 과격한 운동이나 이념이라면 무엇이든지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어 왔다. 즉 그것은 참여 민주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민중주의, 폭력 혁명, 흑인 민족주의, 공동체 의식, 히피 코문, 낭만주의, 평화주의, 반전 운동, 마약 예찬, '해방된 성', 여성 해방과 같은 잡다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인 정의는 신좌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즉, 그것은 신좌파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한 그들이 지금 남겨 놓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위치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켜 놓았다.

그와 같은 혼란을 가져 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신좌파 운동을 평등주의 운동으로 잘못 본 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신좌파 운동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혁명 운동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운동, 흑인 급진주의 운동, 여성해방 운동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좌파 운동을 제3세계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나 민족해방 운동, 반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초기의 연구서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제시한다면, Lyman Tower Sargent의 *New Left Thought: An Introduction*(Hornewood, IL: The Dorsey Press, 1972), 그리고 Edward J. Baccicco, Jr.의 *The New Left in America: Reform to Revolution 1956-1970*(Hoover Institution, 1974)이다. 전자는 신좌파 운동에 호의적인 반면, 후자는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책은 모두 신좌파 운동이 흑인 운동이나 여성 해방 운동과 같은 다양한 급진주의 운동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책들과는 달리, Edward E. Ericson, Jr.의 *Radicals in the University*(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75)는 신좌파 운동을 순수하게 백인 중산층 청년들의 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는 그와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식민주의 운동이나 반제국주의 운동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신좌파 운동은 세계 체제(world system)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세계사적 운동들(world-historical movements)의 하나로²⁾ 잘못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좌파 운동이 일어난지 50년이 넘는 오늘날에 와서 그것이 남겨 준 역사적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신좌파에 대한 정의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의는 신좌파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잡다한 내용들을 제거하여 그 영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재정의하고 나면, 신좌파 운동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신좌파 운동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평등주의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운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그것은 소수의 유복한 중산계급 지식인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으려는 문화 혁명(cultural revolution)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일로 만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 신좌파의 범주에 잘못 포함시켜 왔던 내용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신좌파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1. 자유지상주의 운동으로서의 신좌파 운동

마르크스주의 운동과의 구분

신좌파 운동의 '고유한' 영역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신좌파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좌파 운동을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그 운동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분명해 진다. 신좌파 운동의 최초 조직인 민주학생연합(SDS)의 초기 조직원이었던 리처드 플랙스(Richard Flacks)는 신좌파 운동 기간을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³⁾

2) George Katsiaficas,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 A Global Analysis of 1968* (Boston:South End Press, 1987), xiv.

3) Ericson, *Radicals in the University*, p. 1.

제1단계는 1960년에서 1964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1962년의 “포트휴런 선언”으로 상징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신좌파 운동은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항의하고 사회 변혁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항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은 비이념적인 것이었고, 정치 노선은 혁명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개혁주의적인 것이었다.

이 시기에 신좌파 운동은 넓은 개혁 이념인 진보주의(liberalism)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지국가의 건설, 파시즘의 타도, 매카시즘과의 투쟁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의 업적은 낡은 것으로 보였다. 동시에 신좌파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급진주의로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는 구좌파(the Old Left)였다. 이처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톱 헤이든을 비롯한 젊은 급진파들은 민주학생연합(SDS)을 중심으로 신좌파의 새로운 급진적 프로그램을 내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종래의 좌파와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신좌파로 부르게 되었다.

자신들을 국외자(outcasts)로 생각했던 신좌파의 주요 관심사는 소외(alienation)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포트휴런 선언’은 “우리는 인간을 물건의 지위로 떨어뜨리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따라서 사회는 인간의 “자기개발, 자기통제, 자기이해, 창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제도들의 분권화를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Paricipatory Democracy)의 이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가장 실현할 방법으로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대치할 새로운 대안적 생활 방식(alternative life-style), 즉 대항문화(counter-culture)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신좌파의 눈으로 볼 때,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 같은 구좌파도 자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관료화와 인간의 기계화에 책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구좌파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 방법으로서 강력한 국가 권력과 중앙 통제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좌파는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좌파주의는 일체의 제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 자유(individual liberty)를 강조하는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좌파 행동가들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대응(individualistic reaction)이었던 것이다.⁴⁾

4)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 21.

그러나 제2의 단계인 1964~1968년의 시기에 오면, 신좌파 운동은 이전의 구좌파 운동으로 상당히 되돌아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성 체제와의 대결을 선포하면서 혁명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구좌파로의 복귀는 민주학생연합(SDS)의 톰 헤이든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말로 인정되고 있다. “... 초기의 민주학생연합은 진보주의적인 개혁이었지만, 그리고나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되었다. 초기의 민주학생연합은 신좌파적인 것이었다.”고 그는 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좌파로의 복귀 경향은, 제3의 단계인 1968년 이후의 시기로 오면,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제 신좌파 운동은 원래의 시작과는 아주 달라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성 체제의 타도와 권력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레닌-모택동주의를 행동의 기본 노선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일기예보자들(the Weathermen)과 흑인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과 같은 과격한 직업적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게다가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제3세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나 민족해방 운동과 손을 잡게 되었다. 이제, 미국의 신좌파 운동은 세계의 혁명운동에 종속되었다. 신좌파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성격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2, 제3 단계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현상을 제1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과 하나의 운동 속에 넣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구좌파와 그것에 반발해 나타난 신좌파를 하나의 운동 속에 묶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좌파 운동의 범주에서 구좌파의 영역에 해당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나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 운동을 제외시키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요소들, 즉 자유지상주의, 참여 민주주의, 아나키즘, 대항문화와 같은 요소들을 신좌파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좌파 운동이 제1단계에서 제기했던 근본 목표는 인간의 소외 문제 해결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인권이 보장된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유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좌파 운동은 유산 계급이나 선진국의 급진주의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빈곤 문제의 해결이나 민족 해방의 문제에 부딪혔던 하층민이나 후진국의 급진주의 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신좌파는 가난한 자나 힘 없는 자에 대한 관심 보다는 자신(self)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개인적인 소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일을 하라”(Do Your Own Things)는 구호의 실천이었던 것이다.⁵⁾

표면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고,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중산계급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미국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

5) *ibid.*, p. 146.

전체를 휩쓸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좌파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없는 급진주의자들이야 했던 것이다.

흑인 급진주의 운동과의 구분

이러한 관점에서, 신좌파 운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흑인 급진주의 운동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흑인들이 부딪힌 민권과 빈곤의 문제는 백인 중산층 지식인들이 부딪친 소외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아주 달랐기 때문이다. 백인 급진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얀 흑인”(white nigger)이라고 부름으로써 흑인들과의 동지 의식을 강조했지만, 두 세력은 성격과 목표에 있어서 공통점이 없었다. 그 때문에 두 세력은 계속 충돌하였고, 결국은 결별하고 말았던 것이다.

백인 운동으로 시작된 신좌파 운동은 초기 단계에서 흑인 운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버클리 학생 운동을 주도한 마리오 새비오는 ‘자유언론 운동’(FSM)이 흑인 운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물론, 그것이 흑인 운동의 한 변형이라고 까지 불렀던 것이다.⁶⁾ 안락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문제 의식이 없이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인 학생들에게 흑인들의 시위는 흥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백인 대학생들은 흑인 운동가들을 존경하고 모방하려고 하였다. 그들에게 흑인 학생들은 숭고한 명분을 위해 싸우는 용기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 때문에 민주학생연합(SDS)의 톰 헤이든은 미시시피에서 열린 흑인 학생 조직 미시시피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SNCC)의 모임에 가담하고, 뉴저지의 뉴악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에도 간여하였다. 급진적인 백인들과 급진적인 흑인들의 우호 관계는 1963년 11월에 케네디가 죽고 존슨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면서 몇 달 동안 절정에 이르렀다. 두 인종의 급진파들 사이에는 민권 운동을 계기로 동지 의식이 지배하였다. 백인 진보주의자 조셉 라우는 ‘워싱턴 행진’에서 흑인 운동가들인 필립 랜돌프, 마틴 루터 킹, 휘트니 영과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러나 그러한 협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1964년 여름의 애틀랜틱시티의 민주당 지명대회에서 흑인들의 독자 세력이 인정받지 못하자, 흑인들은 진보적인 백인들을 비난하게 되었다. 흑인들은 백인 진보주의자들의 대변자인 조셉 라우를 “더러운 백인 진보주의자”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와 같은 갈등은 단순한 민권 신장보다 원대한 권력 획득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흑인 민족주의 세력이 커져 가면서 더욱 더 증폭되었다. 흑인 청년들은 흑인 운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당당하게 들어 왔다가 훌쩍 떠나 버리는 백인 동지들의 오만함에 분개하였다.

6) Milton Viorst, *Fire in the Streets : America in the 1960s*(New York:Simon & Schuster Inc., 1979), pp. 304-305.

1964년의 미시시피 여름 수련회(Mississippi Summer Project)를 계기로 백인 운동가들과 흑인 운동가들의 간격은 메꿀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SNCC)의 흑인 청년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80명에 이르는 백인 청년들을 자원 봉사자로 초청하기는 하였다. 왜냐하면 집안이 좋은 백인 청년들의 참여가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스토클리 카마이클, 로버트 모세스, 짐 포먼과 같은 과격한 흑인 민족주의자들은 떨어져 나가, 흑인만의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흑인 민족주의자들은 백인 중산계급의 생활 방식이 병든 것이라고 보고 가난한 흑인들을 그들 속으로 끌고 들어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시시피 여름 수련회 현장에서도 흑-백 갈등은 심하였다. 참여한 백인 청년들의 호의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흑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백인 청년들이 참여한 목적 가운데는 공동체 생활의 실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인들은 대항문화(counterculture)의 요소들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요란한 머리모양, 브래지어 없는 가슴, 맨발, 마리화나, 자유로운 성 행위, 흑인과의 성 행위와 같은 낯설은 행동은 흑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대인들과 흑인들의 충돌도 흑-백 사이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65년에 로스앤젤레스에 폭동이 일어난 왓츠 지구는 바로 흑인 거주자들과 유대인 상점주들이 뒤섞인 동네였던 것이다.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열렬히 도왔던 진보적인 유대인 지식인들은 흑인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가 퍼져 나가는 데 대해 크게 당황하였다. 마틴 루터 킹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흑인의 반유대주의의 상당 부분은 북부의 겐토와 관련된 현상이다 ... 도시 흑인은 유대인들과 특수하고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흑인은 두 개의 다른 역할에서 유대인들을 만난다. 한편에서 그는 민권 운동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로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그는 겐토에서 빈민가 주택 관리인이나 사기성있는 상점 주인과 같은 가장 직접적인 착취자로 매일 만난다...”고 그는 썼다.⁷⁾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마이클과 같은 흑인 급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해 친아랍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서방 식민주의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흑인 급진주의자들이 미국이라는 백인 사회에서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민족주의 의식도 흑-백 협조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미국의 백인들보다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동족 의식을 더 강하게 느껴가고 있었다. 말콤 엑스와 스토클리 카마이클은 미국의 흑인들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상대방의 대의명분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흑인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아프리카 방문에 열을 올리

7) Viorst, *Fire in the Streets*, p. 322에서 옮김.

게 되었고, 그 결과로 1964년 가을에 짐 포먼이 이끄는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SNCC) 대표단은 아프리카의 신생국 가운데서 가장 과격한 기니아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짐 포먼은 아프리카 방문으로부터 미국에 돌아 오자, “어머니 아프리카, 우리의 조국”을 말하고, 미국의 흑인 사회를 식민지라고 부르고,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SNCC)의 목표를 “민족해방”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열풍은 계속 커져, 미국의 흑인 민족주의 운동은 제3세계의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나 민족해방 운동과 연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제3세계 해방의 이론가이며 행동가인 쿠바의 체게바라, 북베트남의 호치민, 알제리의 프란츠 파농을 존경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프란츠 파농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그가 가르쳐 준 교훈은 민족해방에는 폭력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폭력 혁명은 식민지인들이 정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카마이클은 쿠바, 북베트남, 아프리카, 중동의 혁명들을 찬양하였다. 그는 ‘흑인 세력화’(Black Power)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흑인 폭력 단체인 ‘검은 표범당’을 조직하고, 비폭력학생협력위원회(SNCC)를 독립된 흑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조직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비폭력학생위원회는 더욱 더 마르크스주의 화하고 백인에 적대적이 되어 갔다. 그와 같은 풍토 속에서 밥 젤러를 비롯한 백인 행동가들은 설 땅이 없게 되었다.

흑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Antiwar Movement)으로도 표현되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항해 싸우는 북베트남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트남 전쟁은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에 대해 벌이는 식민지 전쟁이었고, 흑인들은 백인들의 용병이었다.⁸⁾ 그 때문에 흑인들은 반전 운동과 징집 거부 운동에 앞장을 섰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흑인 급진주의 운동이 백인들의 급진주의 운동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따라서 그것은 신좌파 운동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신좌파 운동이 근본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백인 중산층 청년들의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8)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 99.

2. 중산 계급 운동으로서의 신좌파 운동

백인 중산계급의 자녀들과 신좌파 운동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좌파 운동의 주류는 백인 학생들의 조직인 민주학생연합(SDS)과 그것이 1962년에 발표한 “포트휴런 선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조직에 참여했던 백인 학생들은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해방 운동에 가담했던 가난한 흑인들과는 성격과 목표에 있어서 크게 다른 사람들이었다. 두 세력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⁹⁾

그와 같은 사실은 민주학생연합(SDS)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백인 청년들의 개인적인 면모를 살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 조직의 중심부에 항상 서 있던 미시간 대학 학생 톰 헤이든은 반드시 혁명가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갖지 않은 평범한 중서부 지방의 백인 중산계급 가정 출신이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하지 않은 근로자들이었다. 인종적으로 아일랜드 계통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었다. 알 헤이버는 미시간 대학 경제학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하버드 대학의 토드 기틀린은 동유럽 출신의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모두 교사였다. 오벨린 대학의 레니 데이비스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경제학 교수로서, 트루먼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500 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살았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자유언론 운동(Free Speech Movement)을 주도했던 백인 대학생들도 가난하지 않고 또한 억압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그 운동의 중심인 마리오 새비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카톨릭 교도였다. 부모는 중산층인 노동계급에 속하였다. 히피와 정치 혁명가를 겸비한 ‘이피’(the Yippies)의 중심 인물이며 ‘시카고 7인’의 한 사람인 제리 루빈도 유태인으로서, 중산층에 속하는 트럭 운전수의 아들이었다. 백인 폭력 조직인 ‘일기예보자들’(the Weathermen)의 중심 인물인 제임스 펠렌만이 비교적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는 약국 점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그 조직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빌 에이어스와 다이애나 옥톤의 가정은 아주 부유하였다. 켄트 주립 대학 사건의 알란 칸포라는 이탈리아계 카톨릭 교도의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는 모두 중산층에 속하는 노동자였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 비추어 볼 때, 신좌파 운동에 가담했던 백인 청년들은 흑인 급진주의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다. 예를 들어, 1964년 6월에 미

9)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 219.

시시피 여름 수양회를 들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예비 모임이 오하이오 주 옥스포드의 웨스턴 여자 대학에서 열렸을 때, 흑인은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교통비와 체제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흑인이 많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동일한 운동에서 협조 관계에 있던 백인과 흑인이라 할지라도, 두 세력의 성격은 같을 수 없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리차드 플렉스에 따르면, 캠퍼스 항의자들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들 가운데는 구좌파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의 비율이 높았다. 전공별로는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이 많았다. 공학은 적었고, 경영학은 전혀 없었다. 1963년에 워싱턴 행진에 관한 사회과학연구소(Bureau of Social Science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행진 참여자의 4분의 3이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빈민이나 실업자는 별로 없었다.¹⁰⁾

그런데도 백인 학생들의 행동은 과격하였다. 예를 들면, 톰 헤이든은 반전 시위를 벌이기 위해 국방부로 행진하고,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고무하기 위해 하노이에도 갔다. 그리고 1968년의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시카고 7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알 헤이버는 사회주의자로서 혁명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학 졸업을 미루었다.

흑인 운동의 모방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처럼 유복한 생활을 하던 중산계급의 자녀들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운동과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에 동조할 정도로 과격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당시의 백인 대학생들이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략 1946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이들로서, 대체로 유복한 상태에서 자란 세대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성애(motherhood)를 강조하는 스포크 박사의 육아법에 따라 자란 세대였다. 즉, 그들은 부모의 과도한 배려와 보호 밑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였다. 따라서, 그들은 대공황과 제2차대전을 겪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인내심이 없고 나약하였다.

게다가 대학생들은 일반 사람들의 근로 사회와 떨어진 대학촌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벌 필요가 별로 없고, 귀찮은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진 유한 계급이었다. 일상적인 생활 걱정이 별로 없으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그들은 청년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은 '포트휴

10) Viorst, *Fire in the Streets*. p. 230.

런 선언'의 첫 머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세대의 우리들, 즉 그런대로 편안하게 자라고 이제는 대학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물려 받은 세상을 편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은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그러므로 대학촌 안에서의 생활은 특수한 성격을 만들어 냈고, 대학생을 독특한 사회계급으로 만들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에서 그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감정을 더욱 더 부채질한 요인은 대학생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취업난이었다. 1965년에 대학생 수요는 역사상 최대의 비율인 550만으로 크게 늘었다. 10대말의 거의 절반이, 그리고 21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의 4분의 1이 대학생이었다. 역사상 이처럼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대학생들을 두렵게 하였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의 불만도 가세하였다. 미국의 대학 교수들은 사회의 다른 지도 세력들과 비교해 위신, 소득, 영향력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학생들의 저항 운동에 동조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릴만한 구체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데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계기로, 잠재해 있던 백인 학생들의 반란 본능은 자극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성 체제에 대해 저항할 구체적인 이유를 가졌던 흑인들과는 달리, 백인 학생들은 뚜렷한 반란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에는 흑인 운동을 돕는 일로 만족해야 했다. 1964년에 흑인들을 계몽하기 위한 미시시피 여름 수련회에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던 백인 학생들만도 800명에 이르렀다. 흑인 운동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백인 학생들은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전세계의 학생 운동과 연대 의식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잠재력도 느끼게 되었다. 한국, 베네주엘라, 일본, 터키에서 학생 시위에 의해 정부가 뒤흔들린 사실은 미국 청년들에게는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신좌파 운동은 제3세계의 혁명 운동으로부터 크게 고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백인 학생 운동이 탄생했다. 그러나, 흑인 청년들과는 달리, 백인 학생들은 그들이 내세운 대의 명분에 맞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이었고, 그들의 성향은 개혁주의적이라기

11) 백인 대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은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Richard Flacks, "Who Protests: The Social Basis of the Student Movement," in *Protest: Student Activism in America*, ed. Julian Foster & Durward Long (New York, 1970), pp. 134-157;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 241 footnote; Kenneth Keniston, *Young Radicals: Notes on Committed Youth* (New York, 1968); Seymour Martin Lipset, *Rebellion in the University* (London, 1972), pp. 81-123.

보다는 이상주의적(millennial)인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 운동이 내세운 목표는 구체적인 사회 개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형(metamorphosis)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항의는 구체성이나 계획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없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원반역행위조사단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든가, 또는 토드 기틀린을 중심으로 워싱턴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다든가, 시카고 대학 행정당국의 인종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연좌 시위를 벌인다든가 하는 등의 자잘구레한 일에 열을 올렸다. 자신들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백인 학생들은 흑인의 민권 운동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도 흑인들의 일이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깊은 불만은 “포트 휴런 선언”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선포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학가 밖에서는 거의 없었다. 백인 학생 운동은 버클리 학생 항의에 와서야 겨우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 때, 백인 학생들에게 반란의 구체적인 이유를 주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운동을 거대한 세력으로 키운 것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Antiwar Movement)이었다. 반전 운동은 흑인 운동에 종속적이었던 백인 학생 운동에게 처음으로 고유한 영역을 열어 주었다. 베트남 전쟁의 종결이란 목표는 민주학생연합(SDS)의 백인 급진파들에게 뚜렷한 방향 감각을 주었고,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게 하였다. 백인 학생 운동에서 반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공화당의 뉴트 킹그리치가 클린턴 부부를 가리켜 “대항문화적 맥가번파”(Counterculture McGoverniks)”라고 비난한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¹²⁾ 이 표현은 신좌파의 본질은 반전주의와 대항문화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 운동이 반전 운동을 계기로 활발해지게 된 것은 1966년 초의 병역법 개정 때문이었다. 그것은 지방 병무청들이 징병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행한 시험 결과와 계급적 지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법 개정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 오던 징집 연기의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서, 빈민과 흑인에게 부당하게 지워졌던 군복무 의무를 평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대학생들에 대한 소집 영장 발부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은 전쟁을 개인적인 위협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까지 전쟁이란 먼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죄악으로 단순히 생각했던 대학생들에게 이제 전쟁은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2) Michael Schaller et al., *Present Tense : The United States Since 1945*, second e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96), p. 569.

흑인 민족주의자들도 반전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백인 학생들은 흑인 운동가들과 투쟁의 공동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을 인종 평등이란 대의명분과 결부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로 백인 학생 운동은 미국 사회의 주요한 세력인 흑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고, 또한 정치 운동의 중심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성 사회 체제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었다. 왜냐하면 흑인들과의 연대는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감에 따라, 흑인 운동과의 동맹도 무너져 갔다. 그리고 백인 학생 운동은 행동 목표를 잃고 대중적 지지도 잃게 되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면서 백인 학생들의 운동은 설 땅이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백인 대학생들의 운동은 여전히 독자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였다.

3. 문화혁명으로서의 신좌파 운동

개인주의 전통과 엘리트주의

이 사실은 신좌파 운동의 '고유한' 영역은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나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바꾸어 말하면, 신좌파 운동은 민권, 빈곤, 민족해방과 같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며, 또한 교육받고 유복한 중산 계급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신좌파 운동의 주축은 '포트휴런 선언'에서 시작되어 히피들의 공동체 건설로 연결되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생활 방식(alternate life-styles)을 찾으려는 문화 혁명(cultural revolution)의 운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의 핵심은 새로운 생활 방식(way of living)의 문제였던 것이다.¹³⁾

미국 지식계가 소외(alienation)의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데는 유럽의 마르크스주의, 특히 허버트 마르크제를 통해 보급된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 지식인들은 그것으로부터 자본주의적-자유주의적인 체제가 요구하는 생활 방식은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일로부터 차단시키

13) Michael V. Miller, "The Student State of Mind," in *Revolution at Berkeley*, ed. Michael Miller & Susan Gilmore(New York, 1965), p. 54.

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소외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국 지식인들이 소외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된 데는 전후 유럽의 비관적인 상황에서 '절망의 철학'으로 유행했던 실존주의(existentialism) 철학의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였다. 신좌파 운동에 가담했던 잭 뉴필드에 의하면, 민주학생연합(SDS)의 젊은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알베르 까뮈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 지식인들로부터 인생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인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이 창조성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행동은 신좌파에게 있어서는 기성 체제의 부조리와의 대결(engagement)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소외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들 유럽의 사상들보다 신좌파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밀즈(C. Wright Mills)를 통해 표현된 미국의 토착적인 민중주의(Populism)인 것 같다.¹⁴⁾ 유럽 사상에 깊은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젊은 지식인들은 낯설은 외래 사상 보다도 토착적인 급진주의 사상인 민중주의에 더 친근감을 느꼈다. 신좌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도 밀즈였다. 실제로 신좌파 운동 초기 단계에서는 밀즈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다. 헤이든은 미시간을 다닐 때 밀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고, 알 하버, 레니 데이비스, 토드 기틀린도 모두 밀즈의 글을 잘 알고 있었다.

밀즈는 텍사스 농촌 지대 출신으로서 도시 부르조아지에 대한 농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성 권력의 기반들에 대한 무력한 민중의 반감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파워 엘리트>는 대항 문화의 스승인 알렌 긴즈버그의 <울부짖음(Howl)>과 같은 해인 1956년에 출간되었다. 밀즈의 책은 인간의 이성애 호소하고 긴즈버그의 책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똑같이 대다수 국민의 무기력함을 파헤치고, 사회의 억압성과 부조리를 고발하였다.

밀즈는 공산주의가 미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련에서도 '파워 엘리트'가 지배하고, 마르크스주의가 억압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식인들에게 밀즈의 민중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구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밀즈 자신도 혁명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는 혁명의 주역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지식인 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랐을 뿐이었다.

이처럼 지식인 계급을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신좌파 운동은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사회 변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인간 조건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자기의 발견에 이르는 길을 찾음에 있어서, 그들은 소수 선각자들의 역할을

14) Jack Newfield, *A Prophetic Minority*(New York:New American Library, 1966), p. 15.

강조하였다. 즉, 선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방의 종교, 및 마약을 통한 자기의 발견, 의식화, 명상, 신비주의의 경험은 일반 대중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엘리트로서의 지식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¹⁵⁾ 신좌파 운동이 해결하려는 소외 문제는 일차적으로 평범한 대중의 문제일 수가 없었다.

소외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좌파의 생각은 집단주의나 국가 통제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보다는 개인의 자발성과 권위의 부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아나키즘에 더 가까웠다.¹⁶⁾ 실제로 신좌파는 투쟁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상징인 붉은 깃발 보다는 아나키즘의 상징인 검은 깃발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아나키즘은 흔히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 철학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또는 libertarianism)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신좌파 사상은 자유주의에 가까웠다. 이것은 신좌파의 사상이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지적 풍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인 것이다.¹⁷⁾

대안적 생활 방식의 실험

여기서 신좌파주의가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를 뛰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commune)의 개념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좌파의 공동체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달랐다. 그리고 그것은 아나키즘이 이따금 제시했던 것 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였다.

신좌파가 건설하기를 꿈꾸었던 공동체는 거대한 도시들을 해체한 다음에 세워질 작은 읍(town)이었다. 각 공동체는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간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들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 같은 것이었다. 각 공동체는 농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만큼의 경공업과 수공업을 약간 가졌다.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능률의 달성이 아니라 인간 욕구에 대한 부응이었다.

그리고 생산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기 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산은 주로 손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고, 농토나 공장의 운영, 및 근로 조건은 근로자들에 의해 직접 통제되도록 하였다. 공동체는 생산수단을 공유화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인 것이었다. 공동체

15)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p.146-147. Eben Given, "The Wakening of the People," in Jesse Kornbluth(ed.), *Notes from the New Underground: An Anthology*(New York, 1968), p. 27.

16) Sargent, *New Left Thought*, p. 165.

17) Marshall Berman,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New York: Atheneum, 1970)

와 관련된 일의 결정은,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원칙에 따라, 관계된 사람들의 전원 참석과 100퍼센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좌파의 공동체는 과거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이 제시되었던 유형으로 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좌파의 공동체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들의 서로 다름(individual differences)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각자의 다른 생활 스타일을 실험해 보도록 장려하는 데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것들과는 크게 달랐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성 사회가 부과하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생활 방식을 실현하는 문화 혁명을 목표로 한 특수한 공동체였다.

그러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보장되어야만 했다. 우선, 공동체는 개인들의 다양성(diversity)이 절대로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긴 머리, 독특한 옷 스타일, 그리고 마약의 허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성있는 삶의 표현은 소속감, 또는 체제가 부과하는 제약에 대한 반발, 또는 진정한 자기의 발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표현할 생활 방식을 발견하고 실행함으로써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개인들이 다양한 생활 방식을 실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사라짐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경쟁의 소멸은 소비지상주의(consumerism)가 극복되고,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함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지상주의(materialism)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쓸데없는 일 자리에 묶여 있는 한, 개인들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한, 부자가 아닌 개인들은 자신의 생활 스타일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소외 의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좌파에게 있어서 소외 상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방된 성 행위'(liberated sex)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자유나 평등의 이상 보다 사랑(love)의 이상에 토대를 두려고 하였다. 그들은 남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소외의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랑의 극치는 그들의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¹⁸⁾ 그러므로 대항 문화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집단 성 행위(group sex)' 나 '집단 혼'(group marriage)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¹⁹⁾

18)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히피를 초기의 기독교도들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Kornbluth(ed.), *Notes from the New Underground: An Anthology*, p. 190.

19) 이 점을 강조한 책으로는 Robert Rimmer, *Harrad Experiment*(1966)가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보다 많은 사랑하는 개인들과 보다 많은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가짐으로써 서로 친밀성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신좌파에게 있어서 '집단 성 행위'는 공동체 의식의 극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쾌락주의(hedonism) 또는 쾌락 윤리(pleasure ethos)의 신봉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성적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개인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다 더 큰 성취와 보다 더 큰 자기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혁명의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올 미래 사회의 부분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신좌파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히피(hippie)였다.²⁰⁾ 그들은 기성의 생활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로부터 "이탈"(drop-out)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생활 스타일을 실험함으로써 기성 체제를 대체할 대안 제도들을 수립하려고 투쟁했다는 의미에서의 혁명가였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은 정치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다. 즉, 그들의 싸움터는 문화였다.²¹⁾

맺 음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좌파 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마련된 선진국에서 나타난 급진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구좌파운동에 해당되는 소련이나 서유럽의 마르크스주의운동, 그리고 중공, 쿠바, 베트남과 같은 후진적인 제3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이나 반제국주의 운동은 신좌파 운동과 결부시킬 수 없다. 신좌파 운동이 선진국의 문화적인 현상이었다는 주장은 오늘날 미국의 '대항 문화'의 요소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신좌파 운동은 빈곤 문제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후진국의 급진주의 운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신좌파 운동은 개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지상주의의 운동이었고, 따라서 미국의 백인 중산 계급 청년들을 중심으로한 엘리뜨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민권이나 빈곤과 같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수준에 머물렀던 미국의 흑인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 운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0) Stuart Hall, "The Hippies: An American 'Moment'," in Julian Nagel(ed.), *Student Power*(London, 1969), pp. 170-202.

21)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p. 213. 신좌파 운동을 문화 혁명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최근의 업적으로서의 다음의 작은 책이 있다. L. H. Gann & Peter Duignan, *The New Lef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of the 1960s: A Reevaluation*(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95).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신좌파 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항 문화(counterculture)를 구성하고 있는 “우드스톡 국민”(the Woodstock Nation), “꽃의 세력”(the flower power)과 같은 요소들, 그리고 그것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리 루빈, 에비 호프만, 데이비드 텔러저 같은 히피 운동가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 대상은 ‘마약’, ‘록 음악’, ‘해방된 성행위’, “생명의 잔치”(the Festival of Life)를 통해 표현되는 대안적 생활 방식(alternative life-style)의 창조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이들 문화 혁명가들에게 지적 발판을 만들어 준 1950년대의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알렌 긴즈버그, 잭 케루악, 윌리엄 버로우와 같은 지식인들과 그들이 발굴한 감정을 대중에게 전달한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과 같은 대중 예술가들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설과 록 음악의 대변자들이지만, 문화 혁명(cultural revolution)을 예고한 사회적 반항아(social rebel)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 세대에 대한 연구는 신좌파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